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8.(일) 12:00
(지면) 2026. 6. 29.(월) 조간

청년이 지역 안전 지킨다,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 올해 전국 11개 시도, 24개 협력기관으로 참여 규모 크게 확대
- 디지털 역량 살린 안전 홍보부터 주민대피 지원까지 청년중심 방재활동 본격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 11개 시도, 24개 협력기관으로 확대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8개 시도, 14개 기관)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이다.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해 출범한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전국에서 약 6만 9천명이 활동 중인 대표적인 지역 방재조직이다. 그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청년층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역 대학, 민간협의회 등(이하 '협력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올해는 참여 지역을 11개 시도로 확대했다. 향후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 단위 조직으로 지속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청년자율방재단은 협력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난 안전 홍보,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 주민대피 지원, ▲기존 지역자율방재단과의 합동 방재활동, ▲재난 피해지역 수습 등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청년들의 강점을 살려 유튜브, 숏폼 등을 통한 재난 정보 확산과 온라인 중심의 생활 밀착형 안전 홍보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자율방재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장관표창과 재난관리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존 지역자율방재단이 쌓아온 20년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에 청년의 아이디어와 기동력이 더해지면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안전의 든든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승진 (044-205-5210)
		담당자	사무관	민준석 (044-205-5219)



시도별 청년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시·도	시·군·구	협력기관
서울	노원구(구성 중)	
부산	부산진구(구성 중)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	서구(구성 중)	
광주	구성 중	
대전	대덕, 유성	한남대학교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세종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	안산, 김포	근로복지공단, 한국서부발전
강원	강릉, 인제	강원대학교, (사)한올타리
충북	구성 중	
충남	당진	신성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	전주, 순창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남	여수, 순천, 나주, 고흥, 신안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일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압해읍 청년회, 동신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북	구성 중	
경남	진주, 사천 김해, 양산 남해	한국남동발전, 국토안전관리원, 국립공원공단, (주)진사전기소방, 김해시청년정책협의회, 양산시청년회의소
제주		한라대학교